

### 중단된 '땅'의 작품적 재검토

# 궁색한 중단이유, 탈망은 드라마

MBC TV가 내던 드라마 '땅'이 도중 하차했다. 당초 50회 방영의 대하드라마로 기획된 '땅'이 지난 4월28일15회로 조기종영된 것이다.

문제는 시청자와의 약속인 편성을 어기고 회사경영진의 일방적인 폐지로서 드라마를 없앤데 있다. 특히 도중에 중단시킨 회사측의 태도가 석연치 않은데, 폐지는 어디까지나 공적이라 하더라도 폐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후유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땅'의 조기종영과 관련 MBC경영진이 밝힌 이유는 "이초의 기획의도와는 달리 지나치게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다루어 '정치드라마'로 변질되고, 내용이 점점 지지부진해 시청률도 떨어져 취한 조처 일련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내용이 많아 간부회의에서 종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MBC노조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명백한 '외압'으로 간주, 5공식의 언론탄압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땅'의 출연진들도 사전통보와 상의 한마디없이 프로그램을 없애버린 MBC의 처사에 대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다면서 시청자와의 약속을 어긴 부당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 매스컴에서도 '땅'의 중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번 처사가 최근 TV와 라디오의 정치적 프로그램의 폐지나 진행자교체와 관련된, 일련의 '정치적 외압'이 아니냐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것이 '땅'의 도중하차를 둘러싼 사건의 전말이다. 여기서 필자는 '외압'이란 확실한 증거를 낼 자신은 없다. 하지만 방송사도 궁색할뿐 아니라 도중하차에는 분명 석연찮은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이 든다.

첫째, '땅'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내용을 많이 다룬다는 점에 종영을 결정한 이유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획단계에서 검토되어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땅'은 제작의도부터가 '본배구조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에 있었던 만큼 토지 정책에 얽힌 정치권의 묘사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경제 드라마'를 시도했는데 '정치드라마'가 됐다고 책 잡는 것은 경제와 정치의 불가분 관계를 모른다는 유치한 변명밖에 안된다. 따라서 '경제드라마' '정치드라마' 따위의 분류부터가 무의미한 일이다.

둘째, 시청률의 저조로 조기종영 이유로 꼽았는데 이 또한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땅'은 특별히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기획자가 시의성에 맞춘데다 작가 김기림, 연출자 고석만감독의 신뢰성이 실려 어느정도 관심을 모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방송사가 내세운 이유들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하는 의구심을 가질만도 하

다. 그런데 유신이나 5공을 거치면서 이념외부의 압력은 정체를 알수 없는 게 특징이다. 분명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기로는 이런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위정자들이나 보수세력들은 '땅'처럼 정치의 냄새나는 이념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걸 달가와할 리는 없다. 첫회가 나가자 방송경영진이 고위층으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았다는 것도 그런 단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계나 재계의 일부에서 '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여파가 종영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리도 가능하다. 문제는 '도중하차'라는 극약처방이 '외압'으로 내려졌는지, 아니면 방송사가 이쪽저쪽 끌려다니는 절이 많았는지 알아서 긴 것일까. 정말 외압에 의한 결과라면 노조나 여러 단체에서 주장하는 '5공 회귀식 발상'으로 지탄을 받아야

있다. 우선 너무 정치적인 이유라면 '땅'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도중하차했으니 '위대한 드라마'라는 식의 과대평가는 없었는지, 마지막까지 창작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지만 창작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특정인의 주의주장이나 관점이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전파로 파급되어도 괜찮을지 등등을...

결론적으로 필자는 드라마 '땅'에 대해 '방송사의 중단이유도 궁색하지만, 작품 자체에도 문제는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한마디로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드라마임에는 틀림없다.

필자는 기회있을때마다 TV에 사회 비판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사회고발이나 시사적 성격의 프로그램은 비판의식 못지않게 주제나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다루는 사람은 가치관과 도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과 우리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수 있는 능력에 관한 깊은 자각이 촉구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때 드라마 '땅'은 필요한 방송에 속하지는 몰라도 좋은 방송으로 꼽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부조리를 표출 고발하는 기능을 했더라도 제중간의 입장을 융합시키기 보다는 끝을 더욱 깊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고, 특히 더 나은 삶과 내일의 비전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땅'은 드라마의 소재로서는 최상에 속한다. 필자의 '대지', 미국의 서부영화 등 땅을 소재로한 작품은 수없이 많다. 이중 MBC의 '땅'은 땅의 사회적 의미를 제시하지는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의 추세를 발맞춰 본배구조의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을 드라마를 통해 제시, 모순을 순진시키는 게 목표라는 제작자의 변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바람직한 작의에도 불구하고, 첫회부터 안방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장면이나 순진되지 못한 언어들, 관계가 아니라도 상식있는 사람들의 지적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또한 15회까지의 내용만으로는 가진자와 못가진자, 우익과 좌익 등 극단적인 이분법적 논리를 부각시켜 보는 이들을 경적된 사고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어떠한 현실, 특히 땅에 얽힌 역사를 서술하려면 그 시대의 사회상에서부터 정치철학, 백성의 가치기준에 이르러까지 그 시각이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 개인의 창작인 TV드라마에 이런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만, 반대로 한 작가의 주관적 사고나 가치관이 보편화될 소지는 최소한 자체되어야 한다.

이제는 소재에 성역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방송사의 자율에 속하고 창작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나 사회성소제의 경우에는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이나 전개방식에 유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결론은 시청자가 내리도록 하는 고차원의 의식과 제작기술이 요망된다.

모처럼 땅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쳐간 드라마 '땅'의 도중하차는 아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이를 계기로 사회비판프로그램이나 정치드라마, 경제드라마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나 이번 '땅' 사태를 계기로 우리역사나 사회가 안고있는 점에 대한 갈등이나 상충을 TV가, 또 드라마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작품의 메시지가 실력 있고 완성도가 높으면 시청자가 방송사의 횡포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땅'의 중단은 정치적 스캔들로 볼 수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방송프로그램(드라마)의 본령에서도 분석 평가하려는 자세가 요망된다.

정중헌  
(방송비평가)



## 의식있는 소재불구, 작품완성도 미약 외압증거 가려 방송자율 획득이 관건

한다.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단이라고 해도 이는 기획의 미숙을 자인하는 결과며, 시청자와의 약속을 내팽개쳐도 괜찮다는 권위주의적 오만의 처사며, 출연진들을 인간이하의 도구로 여겨왔다는 지탄을 면키 어렵다. 드라마 '땅'은 방송사가 자율적인 판단을 거쳐 제작진과 스태프진의 검토끝에 기획 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런 드라마를 도중하차시킨 처사는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나 제작 방향을 예상못했다는 무책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일뿐 아니라, 방송사의 제작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반증에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방송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해명과 조처를 취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된다. '외압'이었던 그 증거를 철저히 가려내고 따져 방송의 자율권을 수호해야 한다. 다만 이쯤에서 우리는 드라마 '땅'에 대해 보다 냉정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 “장미꽃 한송이는 ONLY YOU?”

그대를 만난지 3년째. 남들은 흔히 커플이라고도 하지만 정작 변변한 고백 한번 들은적 없는 그저 그런 사이... 내게 마음이 없는 걸까? 아니면 성격이 무뎌뚱해서일까? 그러던 그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다. 어느날 부스럭거리며 잠만 안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바로 장미꽃 한송이가 아닌가! “누가 장미꽃 한송이는 Only You라고 그러길래...” 듣고보니 제법 맛있는 고백이었다. 장미꽃 한송이를 주며 Only You?



해태제과, Liebherr, 한국생활문화진흥회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민족자주문화를 생활속으로

## 독자투고 생활문화 운동의 재정립 위하여

1. 들어가는 말  
87년 여름이후 최근 4년동안 전국 각 대학에서는 거의 동시다발로 민족생활문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모색, 실천을 염두에 두고 생활문화운동의 실천과제(목표), 주제 꾸리기, 조직구성 등을 모색해가야 하겠다.

2. 생활문화운동의 실천적 목표  
첫째, 문화운동의 영역을 예술운동의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양식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 둘째, 대중들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외세 문화와 결합하고 자주문화를 건설하는 것. 셋째, 문화운동의 주체를 소수 전방위층으로부터 대중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들이다.

3. 생활문화운동의 실천방안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 문화의 성격과 특성을 잘 파악해서 전개해야 한다. 문화는 오랜기간 생활양식으로 습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지시하면서 장기적으로 걸쳐 하나하나씩 바꾸어나가야 한다. 문화는 사상의 현상적 반영물이어서 감성력이 크다. 따라서 스스로 문제를 느끼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과학적인 실험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반감을 사기 쉽다. 이에 생활문화운동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 운동주체 정립으로 대중속 파고들어야 과학적 선전작업·구체적 대안 필요

4. 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양식 전 영역으로 문화운동을 일상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또한 대학이란 곳은 지배자의 논리와 이념을 고착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정책적 의도가 첨예하게 관철되는 곳이다.

5. 나오며  
제국주의 문화가 우리생활 깊숙히 파고들고, 또 물질문화, 정신문화,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침투되면서 청년학생 또한 광범위한 의식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개별화되고 이기적으로 변해간다. 따라서 청년학생

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양식 전 영역으로 문화운동을 일상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또한 대학이란 곳은 지배자의 논리와 이념을 고착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정책적 의도가 첨예하게 관철되는 곳이다.

또한 청년학생운동과 달리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각 부분에서 낙후한 생활자세를 가지고는 신뢰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학은 우리사회에서 각종 문화를 연구하고 창조, 전파하는 중요한 곳이므로 대학생활이 창조하는 문화는 그 사회적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제국주의와 매립독재는 대학을 문화침투의 중요한 고리로 생각하고 있다.

우동연  
(문리대학생 문화부장, 국문3)

첫째, 대중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낄

Advertisement for Liebherr ice cream. Features a large image of a Liebherr ice cream cone and text in Korean. The text includes '사랑의 꽃 사랑의 콘', 'Liebherr 꽃다발 축제', and '응모기간: '91. 5. 5 ~ '91. 5. 24'. It describes a contest where participants can win Liebherr ice cream by submitting a love letter or a drawing.